

광주 공공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시, 20개 공공기관-22개 전통시장 후원협약 시장가는 날 운영·축제·환경정비 등 지원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공공기관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22개 광주지역 전통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광주시 공공기관장 20명, 전통시장 상인회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전통시장 후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용섭 시장이 지역의 민생경제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 탐방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참여 기관은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개 공사·공단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16개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연시장을 대상으로 관서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시장방문 활성화, 축제 공동 추진 등 행정지원, 견문보고 실행 등을 추진한다.

먼저 분기별 후원 시장 가는 날 행사, 기관 회식, 환경정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어린이집, 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함께 상인회 주도의 시장별 맞춤형 방

문 프로그램 개발,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 행사 모델 보급·확산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한다.

그동안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관서일상경비 지출품목도 전통시장 판매품목 구매로 유도하고, 구매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지원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 '제로페이' 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공공기관들이 후원시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후원시장 축제 공동기획, 전통시장 경영개선 자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견문보고 등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이번 후원 협약 체결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동반 성장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종호 광주시장인연합회장은 "상생카드 출시에 이어 시 공공기관들이 지원에 나서 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상인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도시의 역사, 문화가 깃든 곳이다"며 "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도-중국 산시성, 우호협력 강화

무안공항 직항 운행 재개 등 논의

전남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과 무안공항 직항 운행 재개 등 우호 협력을 강화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병호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오는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 등을 방문 중이다.

박 부지사 일행은 지난 17일 산시성 허톈차이(賀天才) 부성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두 지역 간 생태환경, 에너지, 문화관광, 의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도 민간교류차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남도음식문화축제 요리대진, 예술단 상호 파견에 대한 의견

도 나눴다.

특히 박 부지사는 무안국제공항-타이위안 우수공항 간 직항편 운항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성장에게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5000년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산시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전남의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의제와 관련해선 박봉순 전남도 환경산림국장도 산시성 생태환경청장이 환경기술 및 공동연구, 민간기업 교류 등에 합의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11월 산시성 팀 참가, 예술단 상호 파견에 대한 의견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근산 기자

북구, 민생경제 활성화 등 634억원 증액 편성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북구는 "구민·현장중심 혁신행정, 민생경제 활성화 등 민선 7기 구정방침을 반영한 7,28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647억원 대비 634억원(9.5%)이 증가했으며, 민선 7기 현장중심 혁신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토대가

되는 예산안이 포함됐다.

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7,196억원, 특별회계 8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17억원(9.38%)이, 특별회계는 17억원(26.9%)이 늘어났다.

부분별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민생경제 55건 34억원, 동행복지 236건 292억원, 도시재생 124건 194억원, 생활문화 72건 42억원, 혁신행정 40건 12억원 등이다. /이나라 기자

도, 스마트공장 확산 속도 수요-공급기업간 매칭데이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과 솔루션 공급 기업간 매칭데이 행사를 18일 나주호텔에서 개최했다.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에서는 전남에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100여개사가 1대1 세부 컨설팅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호응을 얻었다. /정근산 기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이홍일 시의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는 이홍일 의원(동구 1)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발의한 광주시 에너지복지 조례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가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소외계층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에너지 냉난방연료 지원, 에너지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애란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는 18일 오후 제주도 호텔 시리우스에서 김선남 전남매일 사장(아래줄 오른쪽 첫번째)을 비롯 17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2차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 /대신협 제공

자치분권시대 지역언론 위상 증진 법제 강화

대신협 2019년도 제2차 사장단 회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하 대신협)는 18일 오후 제주에서 2019년도 제2차 사장단 회의를 갖고,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언론의 위상과 역할 증진을 위한 법제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 김선남 전남매일 사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고영진 경남일보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 사장, 한정원 기호일보 사장, 김성의 남

도일보 사장, 장인균 무등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영진 제민일보 사장,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이정중 부매일 사장, 강태억 충북일보 사장, 변주연 충청매일 사장, 김용구 한라일보 사장 등 17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서의 지역일간신문 뉴스 노출도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과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 광고법제 정비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청법등관련법률 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회장에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과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감사에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과 김영진 경남일보 회장, 운영위원에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 사장, 장인균 무등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김용구 한라일보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남해안 관광벨트' 속도낸다

▶1면에서 계속

목포편에는 근대문화역사특구와 고하도 해상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여수편은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신안 자은도에는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영광의 칠산타워를 연계해 개발한다. 해남 오시아노에 국민휴양마을을 조성하고 완도에는 해양치유단지를 만들어 쉬어가는 남해안 관광을 만들 계획이다.

해안관광도로와 남해안 철도를 건설해 영광에서 여수를 거쳐 부산까지 잇고 주요 항과 섬을 잇는 국제·연안크루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지역공약으로 해양관광 선도도시 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난 1월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를 잇는 연도교 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국도 77호선 단절구간 연결 등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남해안권을 국내 4대 관광거점이자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며 "침체한 국내 인바운드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등 전남이 세계적인 섬·해양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h2>삼니다</h2> <p>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p>	<h2>교환전문</h2> <p>빌딩/토지/임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p>
--	---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철근 전남매일

지방자치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14

분실공고

· 종 류 :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국아델리움 103동 702호
· 계약자 : 천신주
· 연락처 : 010-7107-7476
2019년 4월 19일
※ 위와 같이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분실 하여 이에 공고함.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